논어 5편 공야장 27장 · 쓰기 연습

子曰：「已矣乎！吾未見能見其過，而內自訟者也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曰 已 矣 乎 吾 未 見 能 見 其 過

而 內 自 訟 者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